—당신은 세계를 놀라게 했소
—저 봉우리에 오를 때면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3 - AUG - 9
Copy 1960

화살
1959년8월상반호(108)

홍 종호 그림

해방탑 아래에서

—제 1 차 5개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당신들을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열어준 길에서 거둔 성과
입니다

송 용남 그림

리승만의 잠꼬대

7월 어느날 경무대에서 로구 리 승만이 야밤 중에 숨넘어 가는 가쁜 소리로

《아이구, 아이구, 애 애리쓰, 저 저놈들이—저기 뭐요? 저기… 글쎄 날더러 이제부터는 풀이나 칡뿌리, 밀, 보리나 실컷 처먹으라고— 저것 보우, 저것, 앞 뒤'마당에 저렇게 갖다가—아이구, 아이구, 날 좀…》

《리, 승, 만, 정신 차리시오, 정신— 풀, 칡뿌리 아무데도 없소, 당신 잠꼬대 합네다. 잠을 깨시요, 잠을—》

《아이구, 그놈들이 글쎄, 그 몹쓸 놈들이 글쎄, 날더러 쌀 대신에 풀이나 잡곡을 먹으라고 그러지 않소, 글쎄—》

《아이구 하느님 맙소서! 대통령! 진정하시요. 그 무슨 말씀이요? 나 잘 리해 할 수 없소? 진정하시요.》

× ×

실인즉 7월 14일 남조선 괴뢰 국무 회의에서 매국 역적 리 승만이 《장관》 나부랭이들을 향하여

《잡곡을 국민이 애용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도모하는 한편 미곡 배외 수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하였다. 그런데 로구 리 승만 역도의 망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에도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미국 《국제 협조처》의 《사절단》이 남조선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유일한 실천적 대책》이 《남조선 사람들에게 쌀을 더 적게 먹고 보리와 밀을 더 많이 먹도록 장려》 하는데 있다고 떠벌린 바로 뒤를 이어 역시 괴뢰 국무 회의에서 《충실한》 《장관》 나부래기들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잡곡을 먹게 하고 쌀을 외국에 팔도록 하라》고 《엄》한 훈시를 하였던 것이다. 미국 잉여 농산물을 남조선에 더 많이 팔아 먹기 위하여 배'장이 맞는 상전과 괴뢰의 꿍꿍이 공론 끝의 연극인 것이다. 팥으로 메주를 쑤래도 쓸 충실한 괴뢰인지라 《백성들이 쌀보다 잡곡을 애용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도모하라—》 《위풍》 있게 호통을 쳐 놓았지만— 사실, 요사이처럼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파업을 하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청년들이 만행하는 미군을 때려 눕히고 야단 법석이니 하루도 발을 펴고 편히 잘 수도 없이 신경이 과민한 로구 리 승만이—노루 제방귀에 놀란 격으로 오매 불망하여 잠꼬대 연출을 한 것이다.

《아이구, 애리쓰, 글쎄 내가 국민들에게 잡곡을 먹으라고 했다고 생판 날더러 풀이나 칡, 밀 보리를 먹어야 한다구 대들지 않겠소. 글쎄— 그러니 그따위를 내가 어떻게 먹는단 말이요!》

《대통령, 진정 진정하시요. 리 승만! 당신, 조선 국민 아닙니다. 념려 없습니다. 쌀밥 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 애리쓰! 옳소 옳아! 당신 생각 참 훌륭하오! 나 조선 국민 아닌건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오. 나 쌀밥 먹을 수 있소… 오— 하느님—》

김 상애

《대통령》 행세하는 리 승만

미국식 《원조》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 잉여 상품을 남조선에 강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장악함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통탈 략탈하고 있다.

미국식 《친선》

송 용남 그림

판이한 두 현실

북반부

남반부

최 영근 그림

미국식 《원조》

류 계환

《5,000개의 방추를 설비한 견사 공장을 건설하면 매년 200만 딸라에 해당하는 생사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하시오》.

지금은 캘포니아주의 수협국장으로 나가 떨어졌지만 당시는 아직도 《유. 엔군 경제 조정관》으로 있으면서 남조선에서 모든 경제 명맥을 한손에 틀어 쥐고 흔들던 월리암•이•원은 《합동 경제 위원회》 회의에서 리 승만의 관리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앙큼하게 생긴 그의 얼굴 좌우켠에 우묵하게 패여 들어간 두 눈은 파리 잡아 먹은 두꺼비처럼 이따금씩 끔뻑거리는 데 그래도 입에서는 《진정으로 한국을 위한다》는 지극히 리타주의적인 말이 쉴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왈, 《아이. 씨. 에이》(미국의 대외 경제 침략 기구)자금을 대여해 주겠다, 왈, 미국에서 방추도 알선해 주겠다, 왈, 수송선도 마련해 주겠다.…이렇쿵 저렇쿵…

결국 《자비심》많은 미국 관리의 《주선》으로 작년 봄에 서울 근교에 《한국 견방 주식 회사》라는 간판을 건 발라크 건물이 하나 건설되였다. 이 회사의 사장인 김 재현은 83만 5천 딸라의《아이. 씨. 에이》자금을 10년간에 년부로 반환할 조건으로 대여 받아 그것으로 예정대로 미국에서 기계도 마련하고 5,000개의 방추도 수입해 왔다. 이 회사는 견제품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폐견으로 실을 뽑는 공장이 될 것이였다. 그런데 막상 공장을 건설하고 기계들을 돌려 보니 생산은 당초에 예견하였던 최소 생산량보다도 절반도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기계들은 미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폐물로 된 낡은 기계들이였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였다. 견사 공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해부터 미국의 인견사 수입량은 급격히 늘어 갔다. 1957년에는 614톤의 인견사가 수입되였는데 작년에는 3,057톤, 즉 인견사 수입량이 갑자기 5배로 증가하였다.

《한국 견방 주식 회사》는 파산하게 되였다. 회사의 경영자는 할 수 없이 5,000개의 수입 방추를 수입 초모(屑毛)에서 모사를 생산하는데 돌릴 것을 착안하였다. 모사를 생산한다면 그 부문에서는 미국 제품의 압력을 받지 않을것 같았다. 이번에도 미국인들은 《자비》로웠다. 적어도 수십만 딸라의 초모를 이 회사를 위하여 팔아 주었으니까…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된 것 같았다. 즉 생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된 이 공장은 비록 생사는 생산하지 못하게 되였을 망정 모사는 생산할 수 있게 되였고 또 욕심 많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로 말하면 5천개의 방추를 포함한 낡은 기계들을 솜씨 있게 팔아 먹을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자국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초모까지 팔아 먹었으니 이 쪽으로 보나 저 쪽으로 보나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았다.

그런데 사건은 그것으로 《결말》이 난 것은 아니다.

하루는 《아이. 씨. 에이》 직원이 회사엘 찾아 왔다. 회사에서는 당초의 계약대로 견직물을 생산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0년간 분납하게 된 《아이. 씨. 에이》 대부금을 당장 반환하라는 것이였다.

《왜 그러는지요? 모사의 생산이 유리한데요. 견사의 판매 시장은 봉쇄되여 있는 걸요.》

《이 회사는 미국의 원조 회사이니 당신 맘대로는 할 수 없소. 자금을 당장 반환 못하겠으면 공장이라도 내놓아요.》

후에 이 공장은 자금을 봉쇄 당하여 문을 닫고 말았다.

× ×

《한국 견방 주식 회사》 사건이 있은지 얼마 후에 미국 관리들은 석회석 분말 공장을 한 두어개 세워 보라고 또 《권고》해 왔다.

이번에는 이러한 공장이 남조선의 농업을 위하여 토양 구성을 개선하는 10만톤의 석회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미끈하게 선전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 착안이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중 한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자 이 지방에는 이미 분말로 된 자연 석회석분의 방대한 매장량이 있어 그것을 로천에서 채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이리하여 석회석 분말 공장도 건설된 그 날로 파산하게 되였다.

이 공장을 세우는데 115만 딸라의 빚을 낸 조선인 기업주는 공장 시설을 세멘트 생산에 돌릴데 대한 의견을 내 놓았으나 세멘트 독점체와 련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 씨. 에이》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 ×

서울에서 몇분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기아 인다스트리알》 회사의 공장이 있다.

이 공장은 3륜차를 조립하기 위하여 미국 자금으로 건설되였다.

이 회사의 사장 김 철호는 이 곳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신'바람이 나서 자기 회사를 자랑하기를 잊지 않는다.

《이것 보서요, 이런 건물이 창고까지 다섯채나 되지요》

《보십시오, 기대도 새 것들입니다.》

《거 참 새 것이군요. 이 공장은 언제 건설되였지요?》

《작년 봄에 건설했습니다.》

《벌써 건설한지 1년이 됐군요. 그런데 생산된 3륜차는 어디 있나요?》

《3륜차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에 아직 전류조차 통해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금을 안대 주는 걸요.》

× ×

이것이 미제가 남조선의 민족 기업체들을 송두리채 말아먹고 그 대신 세웠다는 몇 개 안되는 기업체의 실정이다.

그들은 작난을 하고 있는 것일가? 물론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조》의 가면 밑에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예속과 침략의 또 하나의 교묘한 수법이다.

그렇게 해 놓고 뒤에서 미국 민간 자본가들을 끌어 들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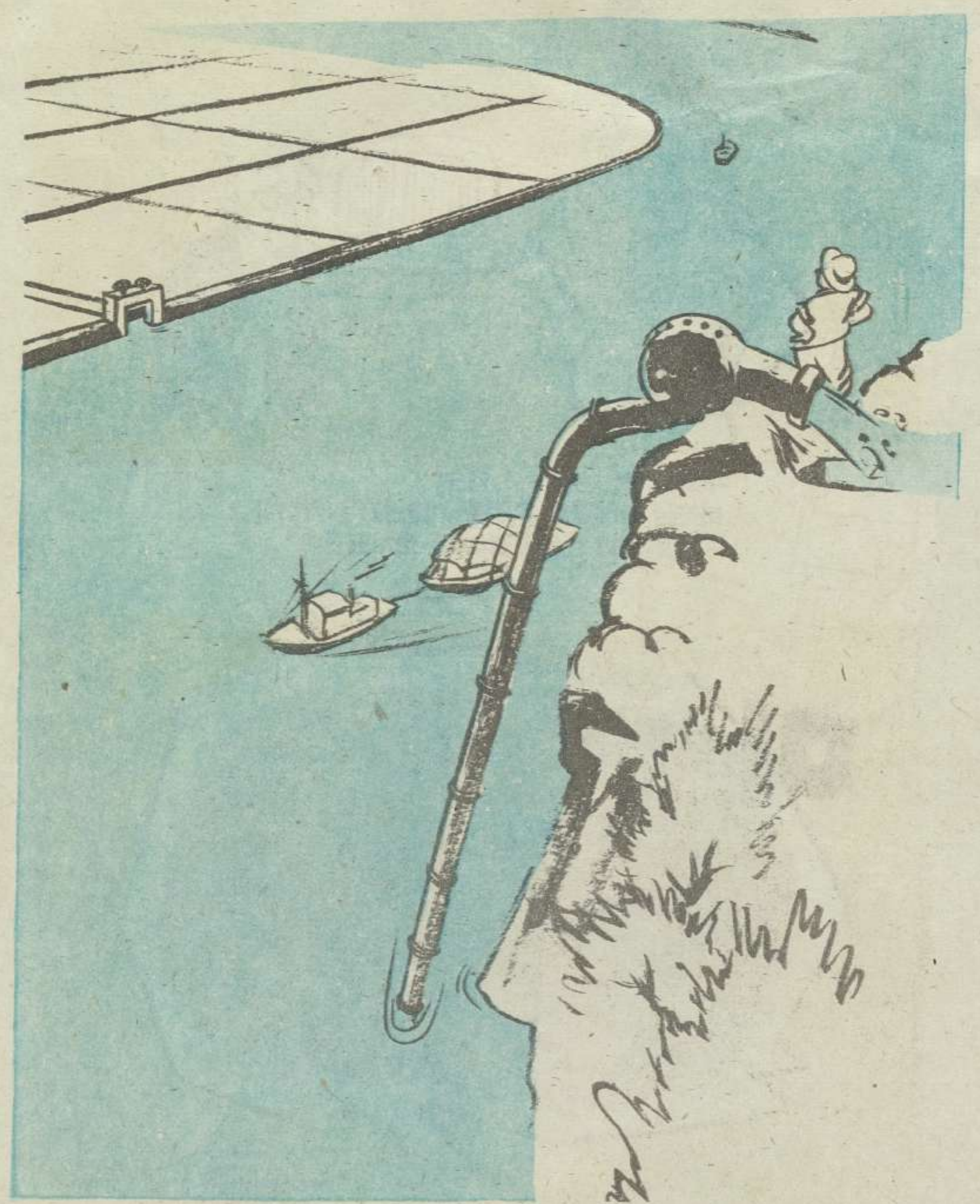
어떤 가면을 뒤집어 쓰면지간에 결국은 사람을 해치자는 것이 승냥이의 본성이다.

—북진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북조선 백성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스위치를 놓어 보시오.

— 으악!
— 으악!

박 기성 그림

청천강에서



《천연 저수지 사건》

신 홍순

경상남도 진양군에 천연적으로 되여 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다.

이곳 농민들은 조상 적부터 이 천연 저수지를 리용하여 논을 만들어 대대로 경작하여 왔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방 〈자유당〉 간부 리 모라는 자가 이것을 통채로 먹어 볼 생각이 나서 그곳 면장을 찾아 갔다.

《면장 령감, 나 허구 같이 수리 공사를 하나 해 보지 않으려우?》

《수리 공사요? 강물을 막아서 보를 내는 거 말이죠?》

《그런 거야 돈이 많이 들어 어떡허겠소? 공짜루 먹을게 하나 있으니 말이지》

《공짜루요?》

《저기 천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면장 허구 배'장만 잘 맞으면 해마다 수백 석의 수세를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이요》

《아니 어디 그런 호박이 있습니까? 그래두 그게 누구의 소유로 돼 있을테죠?》

《원래야 그곳 농민들의 공동 소유죠, 허지만 그걸 더 크게 확장을 헌다구 공사를 허는 척 해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의 소유로 증명을 내잔 말이요》

《아하—그것도 그럴듯 헌 말씀이야! 하지만 여론이 없을가?》

《원, 지금 남조선에 그런 실례들이 얼마나 많다구요? 칼'자루 쥔 사람한테 칼 날을 잡고 대들 수 있나요?》

《허기야 남의 아가리에 들어 간 것까지도 빼앗아 먹는 세상에 그런 거저 먹고 떨어지는 걸 안하겠습니까? 옌장!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면장 령감이 수고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무슨 건데요?》

《면장 지시로서 로력 동원을 시킨다면 일동전 한푼 안들이구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2—3천명 가량》

《그까짓, 거 해 봅시다그려, 면장 권한으로 로력 동원좀 못시키겠소?》

이렇게 하여 면내 농민들을 동원시켜 떼'장이며 진흙으로 이 천연 저수지의 뚝방을 높이 쌓아 올리고 한편 그 아래에다 장차 수세를 받아 들일 수리 조합 사무실까지 2층 양옥으로 굉장하게 지어 놓았다.

그러나 이곳 농민들이 이 내막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날도적놈들 봤나》하며 이 공사를 반대해 들고 일어 났다.

이러는 통에 이번 대 홍수가 났다. 천연 저수지에는 물이 바다처럼 잔뜩 찼다. 비가 채쭉같이 퍼붓는 것도 아랑곳할 것 없이 2층 수리 조합 사무실에서는 리 가와 면장의 싸움이 벌어졌다.

《여보! 그런 먹통 같은 배'속이 어딧단 말이요? 나두 몰래 당신 혼자 명의로 만들려고 수속을 해?》

면장이 팔을 걷으며 울러멘다.

《사실 말이지 당신이 헌게 뭐요? 로력 동원한 것두 령감은 지시문 한 장 뗀것 뿐이구, 나서서 동원시키는 거야 다 내가 수단부려 해 놓은게 아뇨? 사무실두 다 내 돈으로 지은 거요》

《아니 그럼 이걸 혼자 통채루 먹겠단 수작이야?》

《가을에 가서 벼나 몇 가마니 보내 줄테니 앉어 먹기나 허우!》

《아니 이게?》

《뭐야? 누구한테 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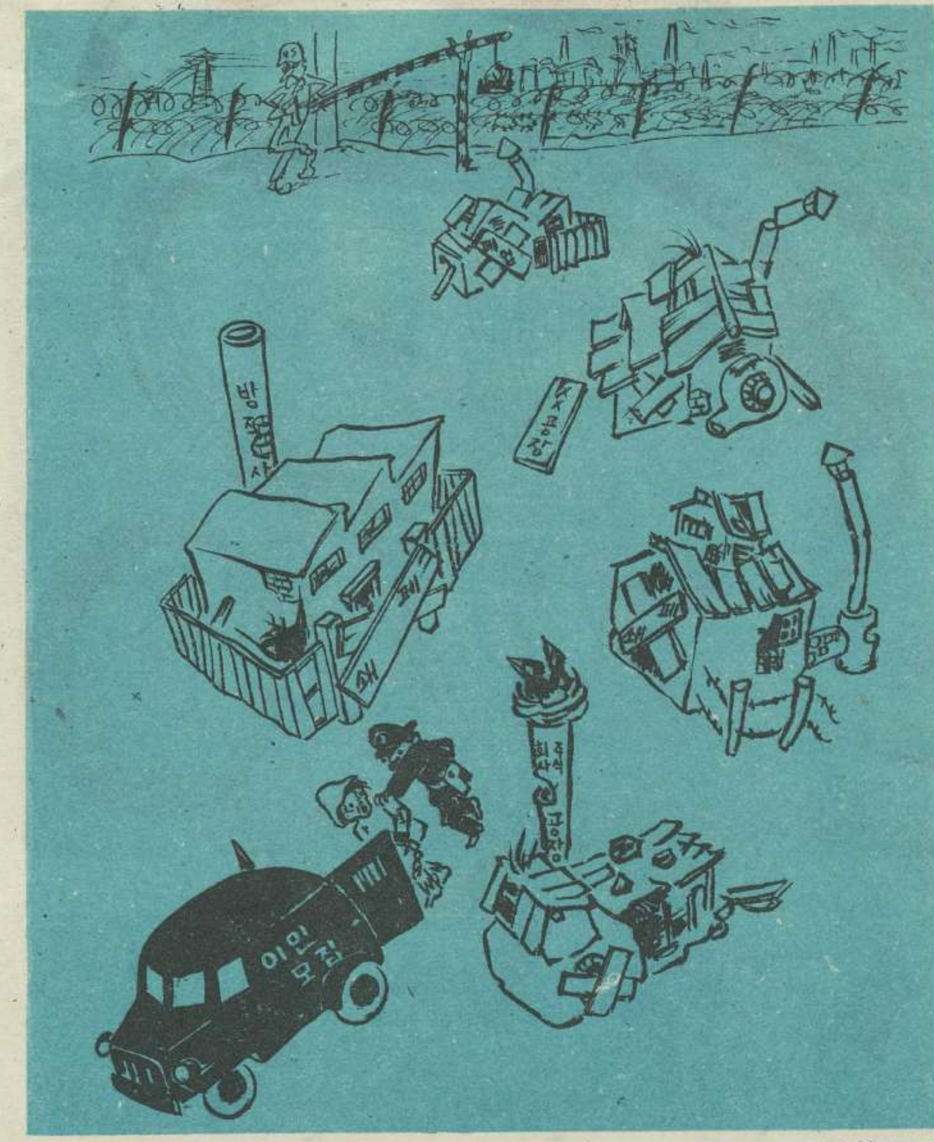
이렇게 서로 옥씬각씬 말 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한창 싸우는 그 때 바로 쌓아 올렸던 동뚝이 탕! 하고 터졌다.

이 바람에 거센 물'줄기는 골짜기가 메게 쏴! 하고 내려 오다가 리 가와 면장이 싸우고 있는 2층 양옥까지 삼켜 버리고 말았다.

락동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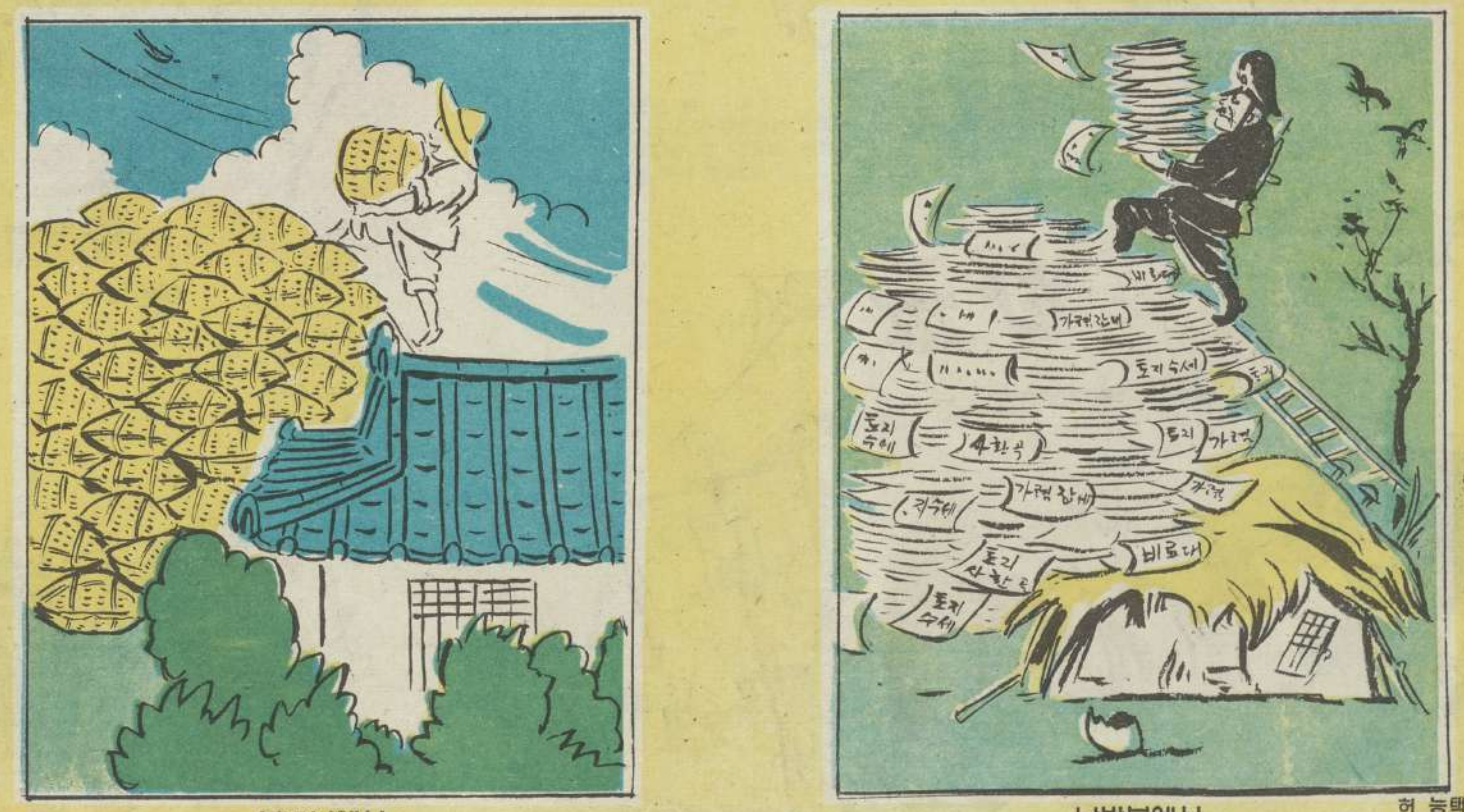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열린 문은 하나뿐



최 영근 그림

추수기



북반부에서

남반부에서

허 능택 그림

평화와 친선의 무대에서

백 인균 그림

갈음 [illegible]건만

북반부 남빈부

허 능택 그림

새로 단장한 대동문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이룩하여 놓은 고귀한 문화 유산의 보존. 계승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남조선 학교에서의 자리 값

경영주—이만 하면 한 밑천 든든히 벌 수 있지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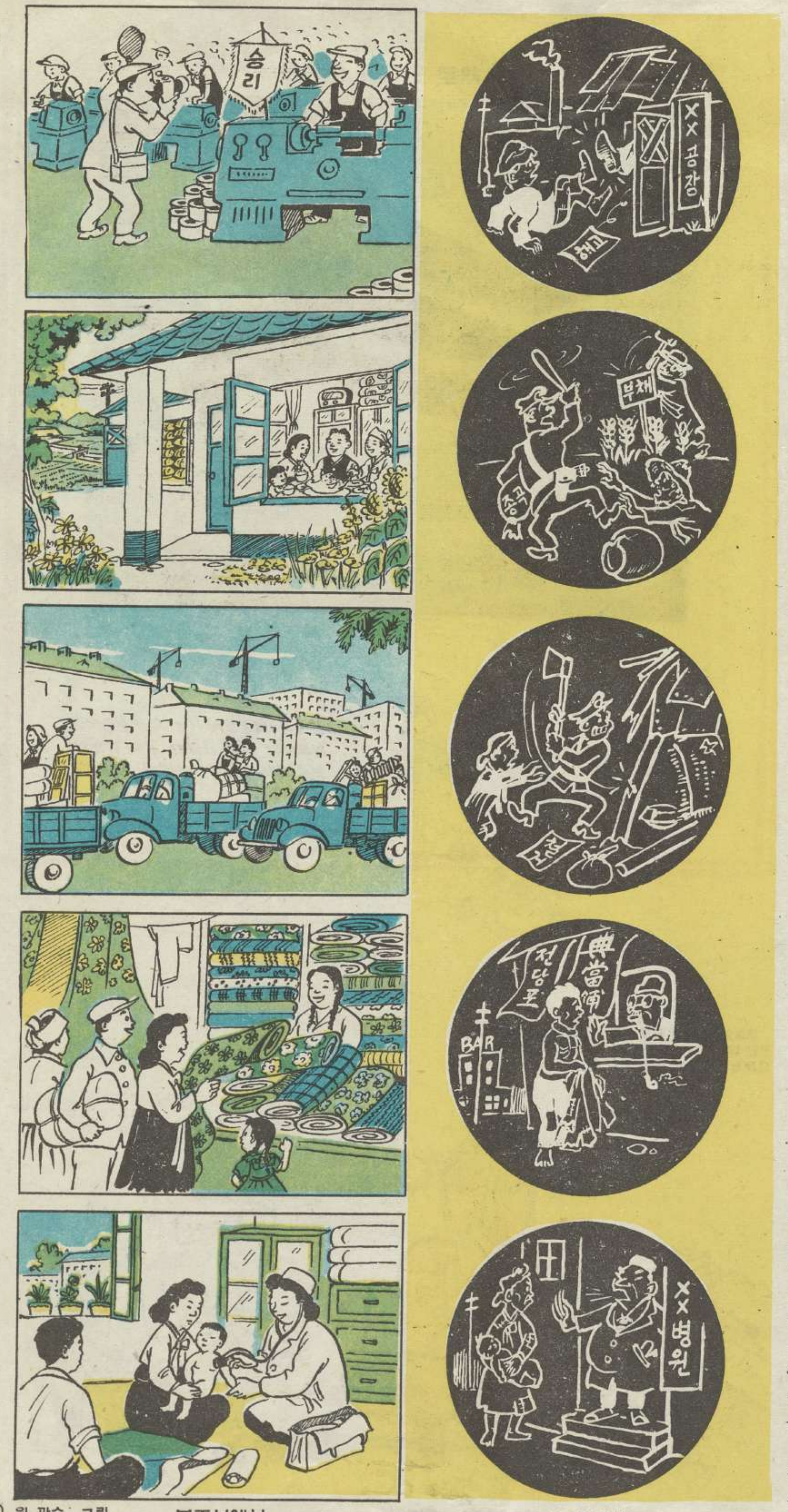
도적놈들의 출고증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은 남조선의 귀중한 문화 유적들을 헐어 버리고 그 자리에 추잡한 료리'집 술'집들을 가득 차려 놓았다.

—어, 술 냄새에 부처님 죽겠다!

백 인균 그림

지상 락원과 생지옥



원 광수 그림

북조선에서

남조선에서

조상도 후예도 모두 강도

박 내숙

오벨트라는 자를 두목으로 하는 미국의 한 해적단은 충청도 덕산군에 침입한 후 남연군의 묘에 기어 들어 그 속에 묻혀 있는 재물들을 훔치려다가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격퇴 당한 일이 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도적들은 부근 민가를 습격하여 주민들을 살상하고 재산을 략탈해 갔다.

이는 1868년 4월 즉 지금으로부터 90 여 년 전 일이다.

이 해적 무리의 후예들은 지금 남조선에서-자기 조상들이 채 이루지 못한 추악한 《뜻》을 《계승》하여 공공연하게 우리 나라의 문화재들을 훔쳐내고 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키들의 략탈이 강도적 방법으로부터 리 승만을 통하여 《원조》에 대한 《보답》, 《사례》, 《증여》, 또는 《해외 전시》의 형식으로, 《채권》에 대한 《채무 리행》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뿐이다.

× ×

리 승만—부라운 씨, 쏘미 공동 위원회 사업이 마음에 안드는 걸요. 하면 할 수록 우리 일이 바닥만 들어나고…

부라운—념려 마시오. 위원회 사업은 파탄 시킬 것이니까…

리 승만—헤헤, 내 그럴줄 알고 이걸 가져 왔지, 자, 기념으로 받으시요.

리 승만은 쏘미 공동 위원회 미국측 수석 대표에게 구술이 들어 있는 보석함 하나를 내 주었다.

애리스—아놀드 장관, 정당 등록법이 또 나왔군요. 이젠 좌익 세력이 좀 누그러질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요. 승만이는 초조해서…

아놀드—마담, 념려 마시오. 군정 법령은 얼마든지 마련돼 있소, 우리에겐 무력도 있고…

애리스—호호… 안심이 돼요. 기념으로 부인께 이걸 드리겠어요. 전해 주세요.

리 승만의 애첩 애리스는 군정 장관 아놀드 앞에 보석 목걸개를 내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에게는 팔지가, 맥아더에게는 또 다른 물건이 주어졌는데 단지 군정 초기에 민족 박물관과 경주 박물관에서 리 승만의 손을 거치거나 또는 양키들 자신의 손으로 반출 략탈된 희귀한 력사적 보물만도 425점에 달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1949년 8월에 당시 남조선 신문 《중앙 일보》가 보도한 바에만 의하여도 그 당시 이미 미국에서 발견된 귀중한 조선의 유물은 24,080 여점에 달하였다고 한다.

전시에는 경복궁 내 박물관에서 1,300여 점, 덕수궁 내 미술 박물관에서 6,000 여 점의 유물들이, 서울 대학에서는 《리조 실록》을 비롯한 8,000여권의 력사적 문헌들과 도서들이 미국으로 반출되여 갔다. 당시 그것들은 《소개》라는 명목으로 반출되였는데 전후에는 《문화재 해외 전시안》이라는 명목으로 수 많은 회화, 금속 제품, 고자기류들이 역시 미국으로 반출되였다.

괴상한 사실은(괴상할 것도 없지만) 전시에 《소개》된 유물들과 전후에 《전시》된 문화재들이 전쟁이 끝나고 《전시》가 끝난지 이미 오랜 현재에 이르기까지 되돌아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기에 나오는 마귀의 동굴처럼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동굴인데 그것은 그 속에 승냥이들이 들어 엎디여 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의 문화 유물들이 당하는 화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유물들은 양키들의 구두'발에 유린 파괴되고 있다.

경상 북도 영천군 영천읍에 있는 6백여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조양각과 군내의 유서 깊은 건물들은 《헌병 학교》 《정보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고적들과 명승지들은 양키들의 유흥장으로 전변되였다.

경주 불국사의 《조망대》는 헐리여 그 자리에 미국식 《호텔》이 들어 앉았으며 석굴암 주위의 귀중한 유물들은 파헤쳐지고 거기에 《청운장》을 비롯한 료리'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그리고 그 곳에서 양갈보를 낀 양키놈들이 히히덕거리고 있다.

양키들의 이와 같은 민족 문화 유산의 략탈, 파괴 행위는 식민지 략탈자로서의 그들의 극도의 파렴치성을 그대로 들어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히히덕거리기에는 아직 시기가 빠르지 않을가?

양키들은 그들이 저지른 파괴, 략탈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보수를 치르고야 말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평양시 동구역 김 진호 그림

살인귀의 자랑

허 능택 그림

—이 총은 언제나 나의 생활을 유쾌하게 하였소
—어느 전투에서요?
—당신은 여기가 남조선인줄 모르시우

모두 팔아 학교에 보냈건만…

조선 인민군 우편함 83705(ㄷ) 김 경진 그림

무법 천지

조 명식 그림

두 강도의 말로

오 흥택

둘은 박쥐처럼 밤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밤을 좋아하는 자들이 남조선에 이 둘 뿐이겠는가!

영등포 한 길'가에서 키다리가 지나가는 택시를 멈춰 세웠다.

《헬로! 종로까지.》

자동차는 질주하였다. 종로 뒤'골목을 몇 번 돌아서다 키다리가 매부리코에게 눈짓을 했다.

《오케》 소리와 함께 운전수의 머리 우에 무거운 쇠뭉치가 내려쳤다. 그다음 키다리는 운전수가 잡았던 핸들을 빼앗아 쥐고 달리다가 으슥한 골목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운전수의 호주머니를 턴 매부리코가 키다리를 보고

《헨리, 5천환 밖에 없네.》

《체, 마수걸이가 시시한데, 한탕 더 하세.》

둘은 혼수 상태에 빠진 운전수를 끌어내 던지고 차를 동대문 쪽으로 몰았다.

창신동의 조그마한 과실 가게 앞에서 파파 늙은 로파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차를 멈춰 세웠다.

《스미스, 해 치우세.》

《오케, 껌 있어?》

로파의 손에 백환 짜리가 쥐여졌다.

로파가 돈 주머니를 열었을 때 노란 털이 부시시한 헨리의 손이 로파의 돈'주머니를 움켜 쥐었다. 소리를 지르려면 로파의 입이 열리기 전에 징박은 구두'발이 로파의 복통을 찼다. 로파는 《악》하고 쓸어졌다. 휘파람을 불며 돈을 세여 보면 키다리는 또 투덜거렸다.

《쳇, 또 3천환 뿐이야.》

그들은 또 자동차를 타고 달렸다.

《한탕 더 하세. 시카고의 밤 주인들이 이런 좀벌레만 잡고 있겠는가.》

자동차는 시계'방 앞에서 멎었다. 키다리와 매부리코 둘이 다 내렸으나 발동은 멈추지 않았다.

매부리코는 《헬로》하고 상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대답을 하려던 상점 주인의 눈 앞을 권총 구멍이 가로 막았다. 우잉도 유리를 젱가당 하고 마스면서 그리로 들어온 노란 털손이 몇 개의 시계를 움켜 쥐었다. 옆 상점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 왔을 때는 벌써 자동차는 간데 없었다.

한참 달리던 그들은 차 안에서 너털웃음을 쳤다.

《스미스, 우리 아메리카의 자유란 이렇게 좋은거야.》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을 위해 축배를 드세, 자, 캬바레로 차를 돌리세.》

두 강도는 차를 개천'가에 처박고 캬바레로 들어 갔다.

《색씨! 우이스끼—》

매부리코와 키다리는 파란 등'불 밑에서 진탕거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식 《자유》를 위해, 강도적 《특권》을 위해, 딸라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쿵당거리는 쟈즈에 맞춰 궁둥춤도 추었다. 저녁끼니가 없는 운전수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파파 늙은 로인의 간들거리는 장사 밑천을 강탈한 것이 기뻤다. 취기가 돌면서 특권의 범위는 확대되였다.

《헨리, 이 좋은 기분에 술값을 치룬다는 것은 아메리카 식이 못되네.》

《스미스, 트집을 잡게, 내가 해 낼테니》

《오케, 우선 축배를》

그들은 더 좋은 기분으로 또 술을 퍼먹고 궁둥춤을 췄다. 그러다가 권총을 빼들고 공중을 향해 한방 놓았다. 〈팡〉하는 총소리와 함께 샨데리야가 산산 쪼각으로 부서졌다. 다시 또 한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하나 남아 있던 전등이 마저 박산이 났다.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이 터질듯이 밀려 나갔다.

총소리에 달려 온 순경도 권총을 란사하는 놈이 양키인 것을 보고는 어데론가 슬쩍 자리를 피해 버렸다. 캬바레가 캄캄해지자 두 강도는 유유히 캬바레를 나왔다. 그리고 강도 행각의 시작되면 때처럼 택시를 멈춰 세우고 도주하였다.

《헨리, 얼마나 좋은 기분이야, 나는 이런 일이 없이는 못살겠네.》

《스미스, 우리의 습관은 피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또 다음에 이 식으로 한바탕 하세, 자네 솜씨도 괜찮아.》

《자네 시카고에선 깡패 축에도 못들더니 여기에선 아주 제법 깡패 같아.》

《그거 다 리 승만의 덕택이지, 특권을 보장해 주는데 어떤 짓을 못하겠나!》.

택시를 타고 가면 키다리가 매부리코에게 눈을 끔벅하였다. 그러자 매부리코의 권총'자루가 운전수의 머리를 내려쳤다. 운전수가 앞으로 쓸어지면서 자동차는 마주 달려오던 미 군용 트럭과 면바로 맞부딪쳤다. 택시는 허리가 동강이 나고 두 양키는 혀'바닥을 내빼고 트럭 밑에 깔렸다.

두 양키의 터진 창자에서는 로파의 장사 밑천과 운전수의 저녁꺼리와 그리고 공짜로 먹은 우이스끼가 너저분하게 흘러 나왔다. 그것은 지나가던 개조차도 외면할 지경으로 추악하고 더러웠다.

추악한 무리들의 말로는 언제나 이렇게 추악하게 끝날 것이다.

흑인과 백인의 〈친목〉을 위하여

로 철

뉴 저지야 주가 미국의 하도 많은 주들 중에서도 아주 혹독한 인종 차별 정책으로써 특히 "명성"이 높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어찌나 그 "명성"이 높았던지 미국 각지의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수백통씩 "흑인에 대한 박해를 즉시 중지하라" "인도주의의 원쑤들을 타도하라"라는 편지가 주 지사 브랜드나에게 쇄도. 이 여론의 거대한 파도에 놀란 주 지사 각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명철"하시게도 "백인과 흑인과의 친목의 날"이라는 것을 고안해 내고서는 며칠간에 걸친 "연구" 끝에 "백인과 흑인과의 친목의 날을 성대히 기념할 데 대한 세칙"이라는 (어마 어마한) 공문을 신문 지상에 광범히 공포.

—6월 21일 (일요일)을 백인과 흑인과의 친목의 날로 설정함. 주내 주민들은 법령이 제정한 범위내에서 이 날을 성대히 기념할 것

단 이 날에는 주민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5명 이상의 집회를 가지지 말것
2) 20 메터 이상에까지 음성이 파급하는 고성을 내지 말것
3) 춤을 추지 말것
4) 술을 마시지 말것—

이상이 주 지사 각하가 서명까지 한 세칙의 중요 내용.

그러나 주 지사 각하가 이날 흑인들이 백인들의 억압과 차별 대우를 반대하는 군중 대회나 시위를 하지 않을가 하는 것은 걱정도 할만 한 일이지만 흑인들이 술먹고 춤출 것을 우려한 것은 공연한 근심인것같다.

그날 그날의 끼니도 겨우 이어가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춤출 경황이 과연 있겠는가?

평양시 동구역
김 진호 그림

첨성대에서

미제와 리승만 도배의 파괴 정책으로 동양 최초의 천문대인 국보 첨성대는 그지반이 가라 앉아 기우러 진채 넘어져 가고있다

양키—높아서 잘 보인다 어데 한진 등쳐 먹을 데나 없나…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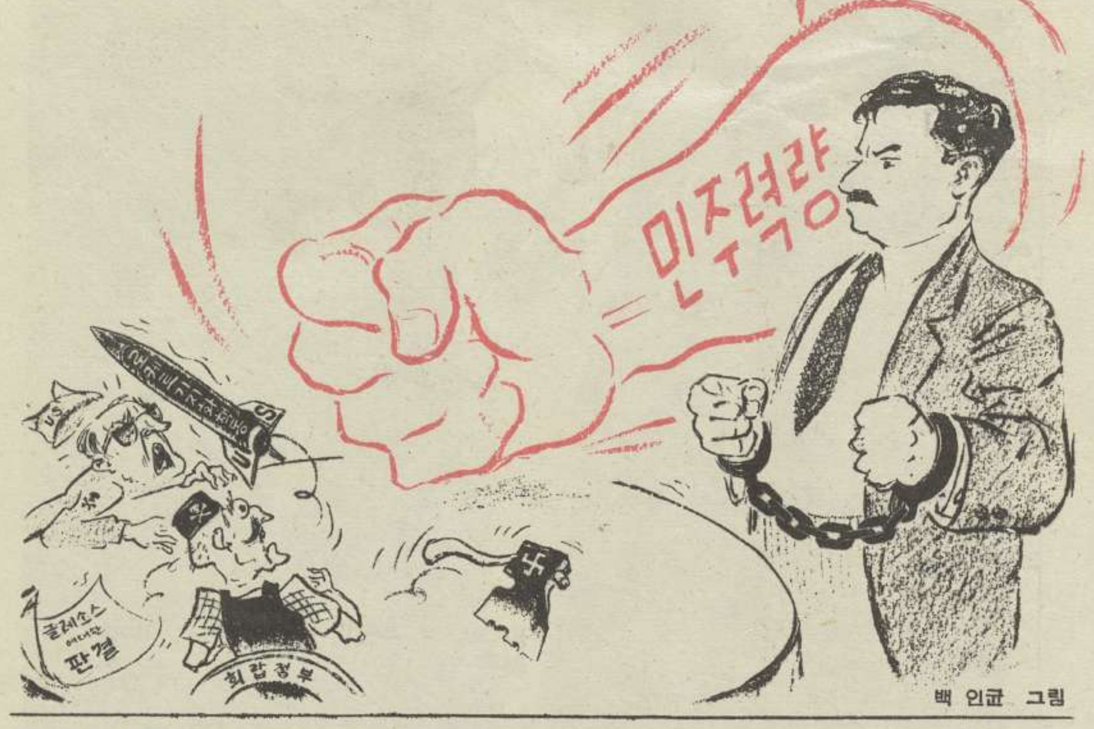
미국식 생활 양식의 범람

금관은 어데로 가고…

미제 날강도들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신라 시대의 금관을 략탈해 간 것을 비롯하여 서울 경주 전주 등지의 박물관과 도서관들에서 많은 국보적 문화 유물들을 략탈해 갔다.

백 인균 그림

마놀리스 글레소스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단호히 배격 한다!



백 인균 그림

경상'골 청년 공원에서

모란봉에서 내려오다가 경상'골 청년 공원에 들린 의거자들은 아이들이 새깜하게 모여서 《위성대》며 《코끼리 락하산》이며 《비행기》들을 타고 재미 있게 노는 광경을 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포동포동하고 건강미로 하여 불그스레 했고, 기쁨에 겨워 입이 헤벌려졌다. 남조선에선 어디서도 보지 못하던 그림같은 광경이였다. 의거자들은 희한해서 바라보았다. 한 의거자가 안내자에게 물었다.

《저런 시설은 어디서 만들어 줍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줍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이런 문화 휴식 시설에 돌려 인민들의 생활에 웃음꽃이 피게 합니다.》

의거자들은 남조선 도처에서 학교는 고사하고 깡통을 차고 구걸질하며 방황하는 뼈만 남은 어린이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눈 앞에 떠올랐다.

구급처 앞에서

어민들이 구급처 앞에 왔을 때였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쏜살같이 구급처로 들어갔다. 한 의거자가 안내자에게 물었다.

《하루 입원 치료 받는데 얼마씩이나 냅니까?》

《일체 무료입니다. 련락만 하면 아무리 멀어도 저렇게 구급차가 달려가 진찰을 하고 구급처에 실어가는데 진찰하고 구급약을 쓰고 구급처에 실어오는 일체 비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구 입원해 있는 동안 쓰는 약값파 기타 비용도 모두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부담하지요.》

《남조선하구는 전혀 딴판이구만요! 거기선 돈만 없으면 약 한첩 못써 보고 죽는데 어찌다 겨우 입원을 했다가도 그 비싼 치료비를 채 못내기만 하면 시체도 못찾아 가는데!》

모란봉 공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로 의거해 온 전 괴뢰군 병사들이 평양 구경을 했다. 그들은 안내자와 함께 모란봉으로 올라 갔다. 마침 일요일이라 모란봉은 휴식하는 사람들로 꽉 덮이였다.

나이 50 가량 된 할머니도 손녀를 데리고 공원으로 올라온다. 그는 다리가 아파 좀 쉬어 가려고 멈춰 섰다.

그때 저편 의자에 앉았던 한 내무원이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오더니

《할머니, 저기 가 앉아서 좀 쉬어서 가십시오.》

하며 자기 자리로 안내했다.

남조선에서 온 한 의거자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의아해 안내자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무얼 하는 사람입니까.》

《내무원입니다.》

《내무원이란 뭘 하는 사람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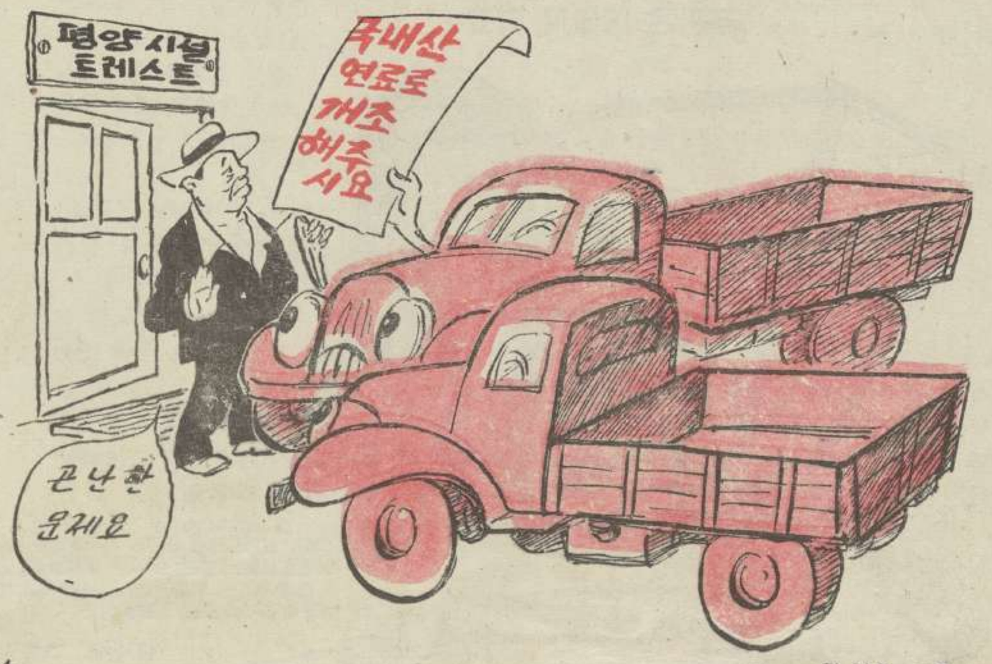
《남조선으로 말하면 순경과 같은 직종이지요.》

《순경과?!》 그 의거자는 눈이 둥굴해졌다.

《왜 놀라십니까?》

《남조선에선 순경이 인민들의 원쑤인데 여기선…》

《남조선하구야 정반대지요. 남조선의 순경은 인민을 략탈하구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괴뢰의 앞잡이들이지만 우리에게선 내무원은 인민의 아들딸로 됐구 인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원 광수 그림

경각성을 높이자

평양시 북구역 내무서 백 창도 그림

평양 역 앞에서

의거자들은 평양역 앞에서 어디론가 멀리로 떠나가는 옷차림을 한 학생들과 청년 남녀, 늙은이들이 숱해 모여선 것을 보고 안내자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안내자가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본즉

《휴양소로 가는 길입니다!》

《휴양소요? 그건 어떤 일을 하는 뎁니까?》

《해변'가나 경치 좋은 곳에 즐겁게 놀고 휴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두 주일 동안씩 잘 먹고 즐겁게 노는뎁니다. 우리 북반부엔 그런데가 270개나 되는데 금년엔 또 작년보다 14만명이나 더 많이 휴양하게 됩니다.》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북반부엔 누구나 다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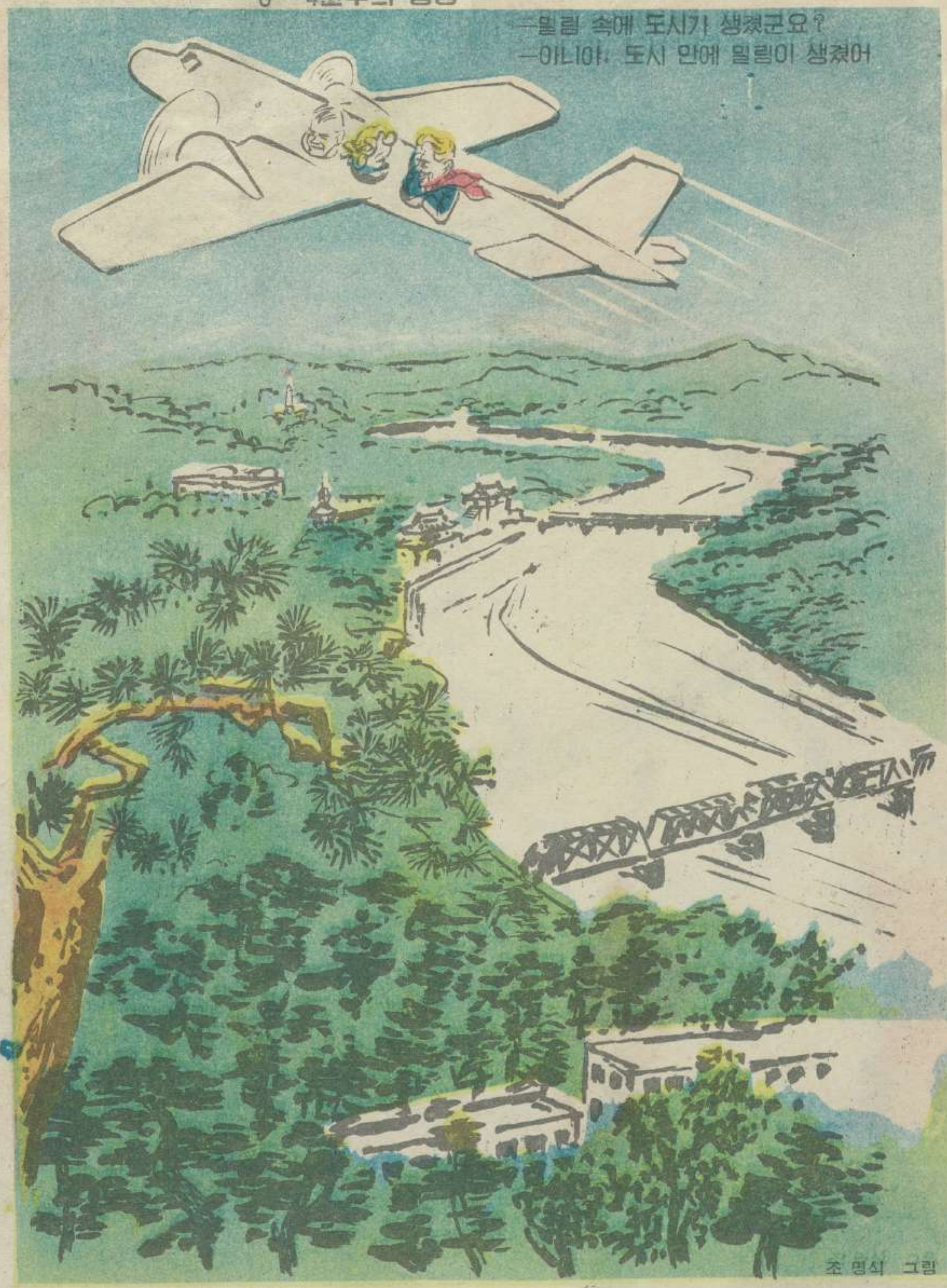
《휴양하는 동안엔 일을 못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사는가요?》

《그건 조금도 걱정 안해도 됩니다. 휴양을 가면 두 주일 동안 매끼 잔치상처럼 차려 주고, 뽀드 놀이 하고, 운동하고, 춤 추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즐겁게 노는데 드는 일체 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도 또 그 동안의 봉급은 봉급대로 일하면 때와 꼭 같이 주니까요. 휴가를 가는 사람들도 일하는 것과 같이 봉급을 받습니다. 금년 초에도 또 임금이 평균 40% 올랐는데 또 물가는 년년이 내립니다. 거기에다 국가에서 주택을 받고 국가 부담으로 무료 교육을 받는 것, 무상 치료, 각종 문화 시설에서 입는 혜택까지 하면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가 예산은 전부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돌리니까요. 그래서 우린 일할 수록 잘 살게 되니 일해도 힘든줄을 모릅니다.》

《여기는 얼마나 살기 좋소!! 그런데 남조선엔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660만이 넘구 휴양이란 말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 봤슈다. 밤낮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제일 낮은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되게 받는데 고거 내주는 것도 요렇게 조렇게 이름을 붙여서 뺏아가는데다 물가는 또 자꾸 오르구… 사람 말리워 죽이는데가 거기랍니다.》

리 윤봉

3~4년후의 평양



조 명식 그림

마지막 둥지

새—나무는 베여만 가니 남조선 땅에
새 살 곳조차 없구나

백 인균 그림

정 정

본지 금년 6월 하반호 7페지에 게재된 기사 "함흥 제 3려관에서"는 "함흥 제2려관에서"의 오식임으로 정정함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609
발행 1959. 8. 16
(값 40 전)

남조선 동포들을 불러 일으킨다
1차5개년계획
완수
조 병식 그림